

# 세계 치과 박물관 여행

미래아동치과의원  
권 훈

## ABSTRACT

### A World Tour of the Museum of Dentistry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Hoon Kweon, DDS, MSD

Although museums of dentistry and dental museums are both museums related to dentistry, they may differ significantly in the scope and the content regarding the audiences. Museums of dentistry, which display a variety of dental instruments, materials, and photographs, help you learn about the development of dentistry and primarily attract a lot of attention from those who work in dental fields. These museums, however, don't get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The dental museum, which displays everything related to teeth and dental care, can attract a lot of curiosity and attention not only by those in dental fields, but also by the general public.

Dental museums should purpose public health education; they should not just be a place for looking around. This is because the experience of the dental museum has the power to engage people. Therefore, if you add educational functions to the dental museum and make it a place to learn about dental history and oral health care, it can be the institution where culture and health are combined.

We need to study history to better understand which improvements we have made and also to see what we need to aim for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way each of 28 dental museums in 7 different countries is operated by describing what I saw when I visited them. In addition, the current state of museums of dentistry in Korea is examined an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s also considered.

Keywords : Museum, History of Dentistry, Tour

Corresponding Author  
Hoon Kweon DDS, MSD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Gwangju, Korea  
Email : 2540go@naver.com

## I. 서론

치과 박물관(Dental Museum)과 치의학 박물관(Museum of Dentistry)은 둘 다 치과와 관련된 박물관임은 분명하지만, 관람객의 대상 범위와 내용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다. 치의학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치과 기구, 재료, 사진 등을 전시하는 치의학 박물관은 치과계 사람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치아 또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시하는 치과 박물관은 치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치과 박물관은 단순히 관람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치과 박물관에서의 체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과 박물관에 교육적 기능을 첨가하여 구강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면 문화와 건강이 어우러진 또 다른 웰빙 장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치과 박물관을 둘러 보면서 실제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치의학 박물관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지금까지 방문한 치과 박물관을 소개하고 방문하면서 연구자가 고찰한 내용을 기술한 자전적 내러티브 기술 방법(autobiographical narrative inquiry)을 택하여, 치과 박물관과 치과의사학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했다.

## III. 연구성적

연구 방법상 관찰과 고찰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총괄 및 고안” 절에 치과 박물관 방문과 연구자의 성찰을 모두 기록하였다.

## IV. 총괄 및 고안

### 1. 미국

#### 1) Baltimore, Maryland : National Museum of Dentistry

Dr. Samuel D. Harris National Museum of Dentistry는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인 메릴랜드주 Baltimore에 있고 1996년 개관되었으며 Smithsonian Institution과 제휴 관계를 맺어 치의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그림 1). 이 박물관은 소아치과 개원의인 Samuel D, Harris의 애정과 관심으로 세계 최고의 치의학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sup>1)</sup>.

Samuel D, Harris는 1903년 Ukraine에서 태어나 1910년 미국에 이민을 온 후 1924년 미시간 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25년 디트로이트에서 개원을 하였고 치과의사 직업에 남다른 애정을 지녔으며 특히 치의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American College of Dentists로부터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형 메달을 받았고 American Fund for Dental Health의 첫 번째 명예 회원이 되었다. 해리스는 치과의사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National Museum of Dentistry를 제안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박물관 설립에 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박물관의 공식 명칭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 2) Ann Harbor, Michigan : Sindecuse Museum of Dentistry



그림 1. 2017년 미국 메릴랜드 치과대학 내에 있는 국립 치의학 박물관 입구 앞에서



그림 2. 2018년 미시간 치대 치의학 박물관에서 큐레이터인 Shannon O'Dell, 조선 치대 이상호, 유재식 교수님과 함께

디트로이트(Detroit) 근처의 대학도시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 치과대학에 있는 Sindecuse 치의학 박물관은 이번 방문이 처음이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미시간 치과대학은 필자의 고향 광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주 기독교병원에서 약 22년(1964~1986) 동안 치과 선교 활동을 하신 Dick H. Nieuwma(1930~2018)가 바로 미시간 치과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그가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배웠던 치의학 지식은 수많은 환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치과의사들에게도 전수되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시간 치과대학 로비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과 달리 한결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미시간 치과대학에 있는 Sindecuse Museum of Dentistry라는 공식 명칭에 사람의 이름이 있다.<sup>3)</sup> 주인공은 1921년 미시간 치과대학을 졸업한 Gordon Sindecuse(1898-1993)이다. Sindecuse는 30년 넘게 개원하는 동안 치의학의 변천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치의학 역사를 보존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Sindecuse는 생의 끝자락에서 모교에 100만 달러를 기증하였고, 그 결과 1991년 치의학 박물관이 탄생하였다. 여담이지만 Sindecuse가 부자가 된 이유는 치과가 아닌 주식이었으며,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었다. 사람은 기억되기 위해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했는데 Gordon Sindecuse와 Samuel Harris는 이름이 새겨진 치의학 박물관을 후세에 물려주었다.

Sindecuse Museum of Dentistry는 방문 전에 예약한 덕택으로 박물관장이자 큐레이터인 Shannon O'Dell의 친절한 설명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그림 2).

박물관의 수장고에 일목요연하게 보관된 유물과 문서를 보면서 학교의 품격과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치의학 박물관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약속도 하였다.

치의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윌로우비 밀러(Wil-

loughby Miller, 1853-1907)의 기념물 두 개를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만날 수 있었다. 치과대학 도서관에는 밀러의 흉상이, 치과대학 앞뜰에는 밀러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그의 치의학 업적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밀러는 과학적 치의학의 아버지 또는 구강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다. 학창 시절 외웠던 치아우식증 발생의 기전을 설명하는 '화학 세균설'을 주장한 치과의사이자 학자이다. 그가 다른 인물보다 남다른 존재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흡수제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치의학에서 위인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다.

### 3) Bainbridge, Ohio : Dr. John Harris Dental Museum

Dr. John Harris Dental Museum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동쪽으로 70마일 떨어진 Bainbridge라는 한적한 작은 마을에 있다. 이 박물관은 '치의학의 성지(Shrine to Dentistry)' 또는 '치의학의 요람(Cradle of Dentistry)'이라는 수식어들이 붙어있다. 미국치과 의사 협회에서도 이 건물을 미국 최초의 치과대학과 개인 치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John Harris는 1819년 신시내티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Madisonville에서 개원하였는데 치의학에도 관심을 가져 떠돌이 치과의사(itinerant dentist) Dr. Eleazar Parmlly와 Dr. Plantou로부터 치과 진료까지도 배우게 되었다<sup>4)</sup>. 1825년 John Harris는 거주하는 인구가 279명뿐인 작은 마을 Bainbridge로 이전 개원을 하여 medicine, surgery, dentistry를 모두 진료하였다. 또한, 그는 1827년부터 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하였는데 그의 제자들로 Chapin Harris, James Taylor 등이 있다. John Harris의 친동생이자 제자인 Chapin Harris는 Horace Hayden과 함께 1840년 미국 최초의 치과대학인 Baltimore 치과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는 뉴욕에 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를 창설하였고 미국 최초의 학회지인 『The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를 창간하였다. John Harris의 또 다른 제자 James Taylor는 신시내티에 오하이오 치과대학을 설립하였으니 청출어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박물관 개관 시간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이고 입장료는 7\$이며 박물관의 주소는 Dental Museum 209 E Main St Bainbridge, OH 45612이다. 오하이오주의 드넓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Dr. John Harris Dental Museum을 방문한다면 치과 진료실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좋은 재충전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 4) Philadelphia, Pennsylvania : Historical Dental Museum (Temple University)

Painless Parker (1872-1952)의 모교인 Temple University 치과대학(구 Philadelphia Dental College)에 있는 Historical Dental Museum에 가면 그의 흔적들을 지금도 만날 수 있다(그림 4). 환자들에게 파커의 발치 경험을 뽐냈다면 수천 개의 치아가 담긴 나무통, 파커가 하루에 발치한 357개의 치아로 엮어 만든 목걸이, 발치할 때마다 악사들이 소리 높여 불렀던 나팔(Klaxon horn)에는 20세기 치과외사학의 우울했던 산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sup>1)</sup>

이 박물관에 있는 액자는 파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uch of what he championed-patient advocacy, increased access to dental care and advertising- has come to pass in the US.” 우리는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떻게 그를 평가해야 할까?

Painless Parker는 수십 명의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 조무사들을 고용하는 대형 치과를 개원하여 단독 개원한 치과보다 훨씬 저렴한 치료비를 제공하여 많은 환

자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파커는 치과의사에게도 광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광고에 관한 한 그 당시 파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최초로 라디오에서 치과 광고를 하였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치과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달고 날아다니게 하였고, 대중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에서 파커가 하마의 이를 뽑는 모습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광고의 달인인 것은 확실하다.

#### 5) Las Vegas, Nevada : Pierre Fauchard Museum, University of Nevada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College of Southern Nevada의 Charleston Campus에 있는 Pierre Fauchard Museum (6375 W. Charleston Blvd. Las Vegas, NV 89146)과 네바다 대학교 치과대학(1001 Shadow Lane Campus MS 7410 Las Vegas, NV 89106)을 꼭 방문하길 권한다. 비록 아주 작은 규모의 박물관이지만 라스베이거스의 그 어떤 관광지보다 치과의사에게 열 배 이상의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치과외사학과 관련된 두 개의 박물관 개관에 혁혁한 공로자가 있는데 바로 Richard Adam Kozal (1935-2009)이다. 리처드는 시카고에 있는 로올라(Loyola) 대학의 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1993년 치과대학이 폐쇄되자 1997년부터 Community College of Southern Nevada에서 dental hygiene program을 9년 동안 교육하였다<sup>5)</sup>.

리처드의 치과외사학에 대한 열정과 Pierre Fauchard Academy의 도움으로 그가 보관 중이던 수많은 치의학 유물들이 귀중한 박물관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Pierre Fauchard Museum은 2000년에 개관되어 치의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그림 5). 이 박물관에 가면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 Pierre Fauchard, 치



그림 3. 2013년 Dr. John Harris Dental Museum 앞에서



그림 4. 2014년 Temple University 치과대학에 있는 Historical Dental Museum에서

임상가를 위한 특집 2



그림 5. College of Southern Nevada의 Charleston Campus에 있는 Pierre Fauchard Museum



그림 6. 2016년 BDA Museum 입구에 서서

과계의 이단아 Painless Parker와 오케이 목장 결투의 주인공인 Doc Holliday 등의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네바다 대학교 치과대학 일 층 로비에 꾸며진 Dr. Henry Zeller's office와 Dr. Leonard Chapman's office는 19세기 치과 기자재와 재료들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이 유물들의 소유자는 1970년대 시카고에 개원 중인 Dr. Richard Glenner였다. 그는 자신의 치과 안에 이러한 치과 골동품들을 전시하여 환자들에게 특별한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다. 치과 기자재 제조업체인 Den-Mat의 창업주 Dr. Robert Ibsen이 Dr. Richard Glenner의 모든 전시물을 구매하여 Pierre Fauchard Academy에 기증하였고 2002년 개교한 네바다 대학 치과대학에 전시되기를 희망하여 라스베이거스에 두 번째 치과 박물관이 탄생하였다.

## 2. 영국

### 1) 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London)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치과의사 면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에 이발사, 가발 제작자, 대장장이 및 약재상이 치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에 치아를 치료하는 사람에게 tooth puller or drawer, dentator, operator for the teeth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다. 영국은 1860년 LDS (License in Dental Surgery) 시험이 시행됨으로써 공식적인 치과외과의라는 직업이 탄생하였다<sup>6)</sup>. 또한 1878년에는 General Medical Council의 주도하에 치과의사 등록을 위한 Dentist Act of 1878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된 치과의사들만이 개원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을 위한 단체 BDA는 1880년에 설립되었다<sup>7)</sup>.

영국치과의사협회 회관은 1880년 레스터(Leicester) 광장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시작되었고, 몇 차례의 이사를 거쳐 현재는 윌플(Wimpole)

스트리트에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협회 건물 1층에 유구한 치의학 역사를 알려주는 작고 아담한 BDA Dental Museum이 있다(그림 6). 현재 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은 30,000점을 넘었고 앞으로도 기증으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키고 BDA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James Smith Turner (1832-1907)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34년 설립된 Smith Turner Historical Museum이 BDA 치과 박물관의 시초라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1920년부터 BDA 명예 도서관 사서로 근무 중이었던 여성 치과의사 Lilian Lindsay는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들을 수집하고 기증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물건들을 BDA 도서관에 이미 전시하고 있었기에 치과 박물관은 1934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되었다.

1935년 조례가 변경되면서 도서관과 박물관 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 두 기관을 지속해서 관리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명예 큐레이터로 임명된 Dr. George Northcroft는 해박한 지식과 역사적인 안목으로 유물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나열식 박물관이 아닌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진 치과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sup>9)</sup>. 박물관은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인한 물난리 때문에 전시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지만 Mr. J. B. Parfitt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더욱 개선된 모습으로 박물관이 재탄생하였다. 1988년 명예 큐레이터로 임명된 Dr. Stanley Gelbier는 전문적인 박물관 큐레이터 Julia Marsh를 채용하여 더 체계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여 매년 1,200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였다.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는 John Tomes와 Alexander Nasmyth (?-1848)가 1800년대 사용했던 묵직한 나무로 제작된 치과 체어가 있다. Nasmyth의 절친이었던 Sir Edwin Saunders (1814-1901)는 에드워드 4세를 치료하였는데 그때 사용된 치과 기구도 이 박물관의 소유물이다. Saunders는 또한 빅토리아 여왕의 치과 주치의였으며 영국에서 최

초로 기사 작위를 받은 치과의사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치과 유물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2014년에는 Arts Council England로부터 공인된 박물관 지정을 받아 치과 박물관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2) British Orthodontic Society Museum (London)

세인트 폴 대성당(St. Paul's Cathedral)에서 서쪽으로 500여 미터를 걸으면 치과 교정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British Orthodontic Society Museum을 만날 수 있다. 1907년 창립된 영국 치과교정의사회는 107년 동안 치과교정과 관련된 2,000여 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치과 교정 박물관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는데 다행히 홈페이지(www.bos.org.uk)를 방문하면 온라인상에서 18세기에 사용된 교정 장치, 재료 및 기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교정 치료가 언급된 고서 즉 Fauchard의 『Le Chirurgien Dentiste』, Fox의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와 Tome의 『A System of Dental Surgery』 등을 소장하고 있다.

치과교정학의 초창기 역사에서 영국 출신 의사와 치과의사들의 공헌이 눈부시다. John Hunter (1728-1816)는 불규칙한 치아 교정을 위해서는 혼합 치열기에 차단 교정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헌터의 제자 Joseph Fox (1776-1816)는 1803년 최초로 부정교합을 분류하였고 유치의 연속 발치술을 주장하였다. 또한, ivory block bite에 금 또는 은 강선을 첨가하여 전치부 반대교합을 치료하였다<sup>10)</sup>. 반면 영국치과의사협회 초대 회장이었던 Sir John Tomes (1815-1895)는 ivory plate보다는 silk ligature가 첨가된 metal plate를 선호하였다. 그는 개방교합 치료를 위해서 head chin caps 사용을 추천하였다.

### 3) Hunterian Museum (London)

Incisors, Cuspids, Bicuspid and Molars와 같은 치아 28개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치과의사가 아닌 영국의 해부학자이며 외과 의사인 John Hunter (1728-1793)이다. 그는 외과학, 의학 교육, 치의학, 병리학 및 수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해부학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8세기 까지 인체 해부학에 관한 지식이 외과 수술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헌터는 해부학적 지식을 수술할 때 사용하였고 30년 동안 13,000점의 인체 및 동물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Royal College of Surgeons는 그의 사후 20주년을 맞아 헌터의 수집품을 전시할 수 있는 Hunterian Museum을 1813년에 설립하였고 이곳은 대영박물관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다<sup>11)</sup>.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입구에 들어서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 중인 헌터 동상을 만나게 된다(그림 7). 매년 신규 외과 의사들은 헌터 동상 옆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것만으로도 외과학에서 헌터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영국에서 헌터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런던 서쪽 끝에 있는 레스터 광장 공원에 다섯 명의 동상이 서 있는데 헌터도 포함되어 있다. William Shakespeare (1564-1616), Charlie Chaplin (1889-1977), Sir Isaac Newton (1643-1727), Sir Joshua Reynolds (1723-1792), William Hogarth (1697-1764). 또한, 헌터는 1776년에 조지 3세의 특별한 주치의로 임명되었고 사후에는 Westminster Abbey에 안치되어 있다.

헌터 박물관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unter collection, Odontological collection, Historical Surgical Instrument Collection이 크리스털 장식장에 전시되어 있어 더욱더 화려하게 보인다. 의사인 헌터는 뼈, 치아와 악골에 흥미를 갖고 왕성한 연구를 하여 치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제인 오스틴이 불신하였던 치과 의사 James Spence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치아우식증, 치아 질환과 치통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쉽게 하였다.



그림 7. Hunterian Museum 입구에 있는 존 헌터의 동상

치아에 관한 두 권의 저서 *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 (1771)와 *A Practical Treatise on the Disease of the Teeth* (1778)를 남겼다. 첫 번째 책에서는 치아에 이름을 지어주었고 두 번째 저서에서는 치아의 이식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헌터는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1767년 Earls Court에 해부 실험과 표본을 저장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살다가 1783년에는 연구와 강의도 겸할 수 있도록 Leicester Square에 있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곳에서는 작가, 시인과 음악가를 초대하여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작가 Robert Louis Stevenson은 헌터의 집을 모티브로 하여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을 탄생시켰다. 소설에서 지킬 박사는 헌터처럼 실험실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 이 소설

은 인간의 양면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헌터의 집뿐만 아니라 헌터의 인생도 소설과 비슷한 것 같다. 지킬 박사처럼 과학적 수술의 창시자로 칭송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았지만, 성격은 하이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헌터는 반항적이고 까다로운 성향 때문에 그의 형 William Hunter와 태반 혈액 순환 때문에 서로 크게 다투었다. 두 사람은 형 윌리엄 헌터가 사망할 때까지 화해하지 않았고 그의 형은 그 시대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다.

헌터 박물관은 세계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전시물의 2/3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치의학적으로 귀중한 유물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중에 'Phossy Jaw'와 윈스턴 처칠의 틀니가 흥미롭다. 19세기 후반에 창립된 영국 치과의사협회는 공중 건강을 위해 실행했던 다양한 사

업 중 하나가 산업 근로자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특히 성냥공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서 원인 모를 구강 내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었다. 만성 통증, 농양, 치은 종창, 치아 상실 및 안면부 변형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매우 고통스러웠고 결국 감염된 악골은 외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영국에서 예방치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조지 커닝엄(George Cunningham, 1852- 1919)은 성냥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불꽃에 포함된 인산(phosphorus)가 체내로 흡입되고 주로 하악골에 침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12)</sup> 공장 근로자를 역학 조사한 결과 건강한 구강을 가진 사람에서는 인산이 어떤 유해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치아우식증, 치주병 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증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다른 대체 물질로 교체되어 이제는 인산 피사는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과 골다공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에 bisphosphonates가 포함되어 있어 악골 피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1732-1799)은 자신의 틀니에 관한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sup>12)</sup>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이던 1940년 5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1874-1965)은 의회에서 특별한 틀니를 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 연설은 영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구한 것은 처칠이 아니라 처칠의 틀니라고 혹자들은 말한다.

처칠은 상악 전치부 4개(#11, 12, 13, 21)와 소구치 2개(#24, 25)에 상실치가 있었다. 직업적으로 정치인이기에 틀니에 무척 예민하였고 연설 도중 틀니가 헐렁거리는 것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다. 또한, 처칠은 치찰음 'S'를 과장해 발음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치과 의사 중 한 명인 Wilfred Fish (1894-1974)가 처칠에게 보철 치료를 시행하였다. 틀니

는 gold base에 platinum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clasp로 제작되었으며 틀니의 구개부 플레이트를 많이 삭제하여 구개와 입천장 사이에 공간을 보존하였다. 이유는 처칠의 개성인 혀짧은 소리(lisp)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틀니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3개가 제작되어 처칠이 교대로 사용하였다. 처칠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틀니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공사 Mr Derek Cudlipp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처럼 전쟁 기간 망가진 틀니를 고치는데 사투를 벌였다. 처칠이 장착했던 틀니 중 한 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있고, 또 다른 한 개는 2010년 영국 경매시장에서 15,200파운드에 판매되었고, 마지막 한 개는 헌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4) Wellcome Collection (London)

의학과 삶과 예술을 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그런데 명칭에 museum 또는 gallery가 없고 사람의 성을 따서 박물관의 이름은 Wellcome Collection이다. 이곳은 미국에서 태어나 1878년 영국으로 이주하여 제약회사를 세워 백만장자가 된 Henry Wellcome (1853-1936)이 평생 수집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영국의 다른 박물관에서도 웰컴의 존재감은 드러나는데 대영박물관 24번 전시실은 Wellcome Trust Gallery, 과학박물관에도 Wellcome Wing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공간이 있다.

사업으로 성공한 웰컴의 열정은 수집으로 이어졌고 특히 의학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의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물건이든 수집하였고 영역을 넓혀 의학 서적도 구매하였다. 그는 1936년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Wellcome Trust를 설립하였다. 현재까지도 이 재단의 지원으로 Wellcome Collection, Wellcome Library와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의 역사 알림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1976년 과학박물관에 11만 4천 점의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sup>13)</sup>. 2007년에 개관된 웰컴 컬렉션의 1층에는 의학에 심취한 사람(Medicine Man)이라는 전시실에서는 의학의 관점에서 본 인류문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획전시실이 있는 지상층과 2층 도서관까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되므로 대영박물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멀지않기에 의료인이라면 꼭 둘러볼 만한 장소이다. 컬렉션 중에서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도 3천여 점이 넘는데 2014년부터 Wellcome Library에서 제공하는 고화질의 Wellcome image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의학의 역사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Wellcome Collection 기획전시실에서 2018년 5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 'Teeth'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기획전은 앙리 웰컴이 수집한 치아와 관련된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박물관에서 치아 관련 유물을 임차까지 하여 전시회가 준비되었다. '치아'에 관한 전시회로서는 역대급이고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하다. 치아 전시회에 진열된 물품들에 관한 설명이 담긴 'The Smile Stealers'라는 책은 이미 2017년에 출판되었다<sup>14)</sup>. 치아를 주제로 치의학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유익한 책이며, 이 책을 읽는 것이 이번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5) Victoria Gallery & Museum (Liverpool)

영국 북부의 리버풀은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스(Beatles)의 고향이기에 비틀스의 팬이라면 꼭 한번 가야 할 낭만적인 도시이다. 리버풀 대학 교정에 있는 Victoria building은 빨간 벽돌, 웅장한 아치와 상징적인 타일이 고풍스럽게 보인다. 이 건물은 빅토리아 여왕 재위 50주년을 기념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Victoria building이라 명명되었고 이 건물 안에 Victoria Gallery & Museum이 있다. 박물관 2층에 있는 Victorian dental surgery에

치과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리버풀 대학의 치과 박물관은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880년 치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박물관은 5명의 큐레이터가 근무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sup>15)</sup>. 그러나 1904년 박물관 직원 중 한 명인 H. W. P. Bennette가 박물관을 인수한 이후 3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치과대학의 세미나실 필요성 때문에 모든 전시물이 폐관된 도서관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Weaver 가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박물관은 1983년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때 박물관의 전시 유물은 시각적 효과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돼 치과의사학에 대한 식견을 제공하였다. 이 박물관의 또 다른 기능은 치과의사들에게 개방되어 사고 및 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치과 박물관에 있던 많은 유물은 2009년에 개관한 Victoria Gallery & Museum으로 이동되어 현재까지 일반인에게도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틀니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ivory denture, ivory and bone base with natural teeth or porcelain teeth, metal base with ivory, natural or porcelain teeth, denture, vulcanite celluloid, acrylic & chrome cobalt denture)<sup>16)</sup>. 17세기부터 서유럽에서 설탕 소비가 증가하면서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틀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작된 틀니로는 저작할 수 없었고 단지 심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1600년대 중반에 시인 Robert Herrick (1591-1674)의 시에서 그 시절 틀니의 가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원문 시를 대략 해석하면 이런 의미다. Glasco는 틀니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더는 치아 때문에 아플 일은 없어졌지만 더럽고 냄새가 나는 틀니가 이제 고민이다. Glasco는 6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양(mutton) 뼈로 제작되었다. 틀니가 음식을 먹을 때는 쓸모가 없고 외견상으로는 그럴듯하다. 그는 낮에는 틀니를 장착하고 있고 밤에는 빼고 있다.

### 6) Surgeon's Hall Museum (Edinburgh)

에든버러 성에서 도보로 20여 분 거리에 Surgeons' Hall Museum(의학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은 에든버러 왕립 의과대학(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dinburgh)이 운영하고 있다. 의학 박물관은 1505년 왕립 의과대학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고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1980년대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면서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으며 의학 및 치의학의 변천사를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장소이다. 2014년 Lister Project로 박물관의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2015년에 완성되면서 Surgeons' Hall Museum은 3개의 전시실(The Wohl Pathology Museum, The History of Surgery Museum, The Dental Collection)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8).

Surgeons' Hall Museum의 2층에 작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치과 전시실(dental collection)이 있다. 이곳의 주요 전시물은 치과의사 John Menzies Campbell (1887-1974)의 공헌에 의한 것이다<sup>17)</sup>. 그는 40여 년 동안 수집한 치과 기구, 치의학과 관련된 그림 및 인쇄물을 1964년 에든버러 왕립 의과대학에 기증하였고, 유물들은 "Menzies Campbell Dental Collection"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치의학 박물관의 형태로 독립된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Tooth extraction, Tooth maintenance and repair, Dental training, Dentistry : Home mouth care, Modern dentistry 등과 같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이곳은 다른 치과 박물관과 달리 16~19세기까지 그림들이 꽤 많이 걸려있었다. 그림을 통해 그 시절의 치과 진료 장면과 예술가의 눈에 비친 치과의사의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 3. 프랑스

#### 1) 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 (Paris)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 피에르 포샤르(Pierre Fauchard, 1678-1761)를 기념하기 위해 1937년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이 설립되었다. 이곳에는 19세기 치과에서 사용된 기구, 문서, 도서와 그림 등 다양한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01년 폐관되었다. 그러나 모든 유물은 파리 공공병원 박물관(Musée de l'Assistance Publique - Hopitaux de Paris)으로 양도되었지만, 이 박물관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 문을 닫고 말았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찬 소식은 2016년 적절한 장소를 찾는 대로 재개관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그림 9)<sup>18)</sup>.

피에르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은 야코프 요르단스(Jacob Jordaens, 1593-1678)의 작품 「The torture of St. Apolline」을 소장하고 있다. 바로크의 회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요르단스가 그려서인지 이 그림은 신화를 소재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난다.

### 4. 이탈리아

#### 1) Museo di Storia della Medicina (로마대학교 의학 박물관) : Roma

이탈리아에는 28개의 치과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2개의 치과대학이 로마에 있다. 국립인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Sapienza-Università di Roma)과 사립인 사크로 쿠오레 가톨릭 대학(Università Cattolica Sacro Cuore)에 치과대학이 있다. 이탈리아어로 Sapienza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한다. 이 대학의 상징물은 로마 신화에 '지혜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미네르바(Minerva) 동상이 캠퍼스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바로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에 1938년 설립된 의학 박물관이 있고, 2층 전시실에 치의학 유물이 매우 단출하게 진열되어 있다<sup>19)</sup>. 프랑스 파리 데카르트 대학교(Université Paris-Descartes or Paris-V)에 있는 의학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치의학 유물 전시관의 크기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는데, 로마 라 사피엔



그림 8. 에든버러에 있는 Surgeon's Hall Museum



그림 9. 2014년 프랑스 치과의사 Dr. Henri Aronis와 함께 포샤르 치의학 박물관 앞에서

차 대학교에서도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 Maria Montessori (1870-1952)는 로마 라 사피엔차 의과대학을 1896년 졸업함으로써 이탈리아 의학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그녀의 이름 몬테소리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에겐 익숙한 단어이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여성을 대표하는 전문지식인이었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차별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 정신병원에서 보조 의사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통하여 몬테소리 교육법을 개발하였고 그녀의 교육 방법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마리아 몬테소리는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 2) Museo Storico Nazionale dell'Arte Sanitaria (건강역사 박물관)

국립 건강역사 박물관은 1933년 개관되었고 오래된 로마의 정신병원 건물에 자리를 잡고 있다. 초창기에는 교육을 위한 해부학 박물관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2층 건물의 9개 실에 의학, 외과학, 치의학과 약학에 관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치의학 유물은 Capparoni와 Carbonelli 실에 92점의 치과 기구, 5점의 구강 위생 상자, 25개의 치아 보철물, 15장의 프린트와 2점의 유화가 있다.

Pietro Domenico Olivero (1679-1755)의 1743년 작품 'Cavadents'는 튜린의 화가 Vassallo가 1930년 다시 그려진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무명작가가 그린 또 다른 유화가 시선을 끈다. 19세기 초 발치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인데 그림에 쓰인 문구가 매우 풍자적이다<sup>20</sup>. 소년이 들고 있는 인쇄물에 적힌 "il professore gambacorta a chi non può slargar' la borsa li cava gratis."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저 다리 짧은 발치사는 지갑을 열 수 없는 자만 무료로 발치 해줍니다." 발치사는 벤치에 누워있는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는 중이고, 바로 왼쪽에 서 있는 남자는 집을 향해 트럼펫을 불면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가장 왼쪽에 서 있는 환자는 손수건으로 아픈 치아를 압박하면서 발치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

## 3) Museum of Sanitary Arts & History of Medicine in Naples (나폴리 건강 및 의학사 박물관)

나폴리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이탈리아 남부 투어는 선호도가 높은 코스이다. 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아말피, 포지타노 순으로 둘러보면 이탈리아 여행의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그 외에도 나폴리를 가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필자는 로마에 있는 건강역사 박물관(Museo Storico Nazionale dell'Arte Sanitaria)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폴리의 건강 및 의학사 박물관(Museum of Sanitary Arts & History of Medicine in Naples)을 방문하였다. 이 박물관에서 치의학 전시관(history section of dentistry)을 담당하고 있는 Fernando Gombos 교수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치과의사학 이야기와 유물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그림 10).

박물관의 2층에 있는 치의학 전시관은 수십 년 동안의 열정적인 노력과 연구를 한 Fernando Gombos 교수 덕분에 일목요연하게 다양한 치의학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사용된 치과 기공 장비와 다양한 유형의 치과 보철,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시대별로 진열된 교합기, 치과 유닛 체어의 변천사 등을 보면서 이 박물관이 작지만 위대하게 보였다. 특히 다른 치의학 박물관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임플란트 관련 유물이었다. 현대 임플란트 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Leonard Linkow (1926-2017)가 사용했던 임플란트 픽스처를 직접 볼 수 있었다. Linkow는 1952년 뉴욕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4개월이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선사시대 동물의 턱뼈와 치아 화석도 오랫동안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유물이었다. 900년도 중반에 나폴리에서 진행되었던 치아 보호 캠페인에 관한 문서는 자료를 잘 보관해온 이탈리아의 저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시간을 치의학 전시관에서 보냈지만 아쉬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Fernando Gombos 교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의 저서 'Il Cavadenti'를 통해서 더 많은 치의학 역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4) Museo di Odontoiatria EN (치의학 박물관)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FIAT(Fabbrica Italiana Automobili Torino)에서 마지막 글자 T는 토리노이다. 바로 이 도시에 창립된 지 100년이 넘는 FIAT 본사와 공장이 있고, 피아트 산하에 페라리(Ferrari)와 마세라티(Maserati)와 같은 명품 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토리노를 방문한 이유는 토리노 치과대학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치의학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Valerio Burello 교수님과 미리 약속한 상태였기에 토리노를 향할 때 약간은 들뜬 마음이었다(그림 11).

치과대학은 과거 피아트 공장이었던 링고트(Lingotto) 빌딩에 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 후 1, 2층은 쇼핑센터, 3, 4층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5, 6층은 자동차 학과가 있다.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선형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예전에 이 건물이 공장이었을 때 옥상에 있는 race and test track으로 이동하기 위한 길이 건물 내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링고트 빌딩의 3층에 치의학 박물관이 있으며 치과대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고 박물관의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복도에서 박물관 내부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치의학 박물관은 2008년 링고트 빌딩으로 이전하여 자리를 잡았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6년부터 치의학 유물들은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Valerio 교수의 자세한 설명과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장

식장 유리문도 열어주신 친절함에 오전 내내 이곳에서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치의학 박물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도 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치과의사가 방문할 가치가 있는 치의학 박물관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 5. 네덜란드

#### 1) KNMT (네덜란드 치과 의사협회)

KNMT (Koninklijke Nederlandse Maatschappij tot bevordering der Tandheekunde)는 영어로 하면 The Royal Dutch Dental Association이고, 국문으로 하면 네덜란드 치과 의사협회 정도로 해석된다. KNMT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 아닌 위트레흐트(Utrecht)에 있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외의 사실이다. 네덜란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위트레흐트는 중앙에 있는 편이다. 16세기 이 도시에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시작되었고, 18세기까지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의 수도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몇 가지 더 있다. 1877년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치과대학이 개설된 곳이 위트레흐트이다. 110년이 지난 1987년 마지막 치과대학 졸업생을 배출시킨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88년에는 위트레흐트 치과대학에 있는 네덜란드의 유일한 치과 박물관도 폐쇄되면서 유물들이 위트레흐트 대학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위트레흐트는 치의학적으로 처량한 상황에 부닥쳤지만, 굳건하게 KNMT 본부는 이곳에 있다. 지리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으니 특별히 불편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미국도 ADA 본부가 워싱턴 D.C.가 아닌 시카고에 있다.

KNMT에는 특별한 기념물과 재미있는 단체가 있다. 1910년 KNMT는 위트레흐트 치과대학 신축 건물 완

임상가를 위한 특집 2



그림 10. 2017년 나폴리 건강 및 의학사 박물관에서 Dr. Fernando Gombos 교수와 함께



그림 11. 2017년 토리노 치과대학 치의학 박물관장 Valerio Burello 교수와 함께

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기념물을 치과대학에 선물하였다. 그것은 바로 Saint Apollonia Window다(그림 12). 위트레흐트 치과대학 교수 J.E. Grevers가 도안하여 제작된 윈도 중심에 치과의사 수호성인 아폴로니아가 있고, 그 하단에는 영국 치의학의 아버지 Sir John Tomes (1815-1895), 구강 미생물학의 아버지 Willoughby D. Miller (1853-1907), 현대치의학의 아버지 Pierre Fauchard(1678-1761)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윈도 주변에 채워진 문양은 네델란드 12개 주와 레이던과 암스테르담 휘장이다. 윈도 상단에는 네델란드 국장이 있다. 위트레흐트 치과대학이 폐교된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위트레흐트 대학이 보관해오다 2010년부터는 KNMT에 옮겨져 와 전시되어 있다<sup>21)</sup>.

KNMT 산하 단체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SVTE (Stichting Vrienden Tandheelkundig Erfgoed)가 있다. 영어로 번역하면 Friends of Dental Heritage Foundation 이런 뜻이다. 글자 그대로 치의학 유산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인 자선 봉사 단체 정도로 파악된다. 이 단체에서는 네델란드 치과의사협회 소속 회원 일만여 명의 치과의사들에게 금전적 기부를 요청하고 치과 유물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수장고에 보관된 치과 유물들이 독립된 치의학 박물관에 전시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Dentistry in Print Art)』을 출판하여 기부자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sup>22)</sup>.

## 2) University Museum Utrecht (위트레흐트) : Depot Museum

네델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인 위트레흐트 대학 박물관이 관리하는 창고형(depot) 박물관에 45,000여 점의 치의학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전시형 박물관이 아닌 건물 지하 1층 창고형(depot) 박물관 수장고에 있지만, 습기 조절과 환풍이 잘되는 공간에 잘 보관되어 있다. 언젠가는 치과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만

남을 기다리면서 지하실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번에 네델란드/벨기에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몇 년 전부터 이곳을 방문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참이었다. 미리 박물관 방문 약속을 하고 온 터라 치과 유물 담당자인 Reina de Raat를 만나서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그림13).

1877년에 네델란드에서 첫 번째로 개교한 위트레흐트 치과대학 치의학 박물관의 싹을 틔운 사람은 Theodore Dentz (1840-1933)이다. 그 이후에는 J. A. W. van Loon과 J. G. Schuiringa가 유물의 숫자를 계속 증가시켰다. F. E. R. de Maar의 열정과 헌신으로 치의학 박물관이 1958년에 개관되었다<sup>23)</sup>. de Maar 위트레흐트 치과대학 교수는 네델란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치의학 유물을 수집하였다. 그는 독특하고 신기해 보이는 유물은 무조건 구매하였고, 때로는 은퇴한 치과의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귀중한 유물을 기증받기도 하였다. 그가 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1940년까지 꾸준히 치과 관련 유물을 수집하였다. 1960년에는 헤이그에서 은퇴한 치과의사 Kalman Klein (1885-1947)로부터 2,000여 점의 치의학 유물을 기증받았다. 그 결과 1974년 4개의 방으로 구성된 치과 박물관으로 확장되었다. 40여 개의 장식장에 치의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이 전시되어 환자, 치과의사와 의사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 6. 대한민국

### 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박물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층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은 서양 치과의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사용된 치과 유물 총 6,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1년 개관된 국내 최초의 치의학 박물관이다<sup>24)</sup>. 박물관의 목적은 치의학 관련 유물을 발굴하고 전시함으로써 치과의사와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치의학 역사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



그림 12. 네덜란드 치과의사협회에 전시된 Saint Apollonia Window



그림 13. 2018년 위트레흐트 대학 창고형(depot) 박물관에 보광중인 치과유물 앞에서 큐레이터 Reina De Raat, 프랑스 치과의사 Dr. Henri aronis, 문익훈 원장님과 함께

용되기 위함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구강 보건에 관심을 두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01년 200여 평의 규모로 출발한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은 치과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2003년에는 치의학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도록(한국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박물관)도 출판되었다. 또한, 치의학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dentmuseum.or.kr/>)에도 박물관 전시실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내부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휴관 중인 상태다(그림 14).

## 2) 연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

연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은 쉐플리(W. J. Sheffley)가 1915년 세브란스 연합의학교에 한국 최초의 치과학교실을 설립하고, 병원 내 치과를 개설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발전해 온 지난 90여 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2006년 치과대학 1층 로비에 35평 규모로 개관하였다<sup>25)</sup>.

치의학 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도입부, 세계의 치의학사, 연세 치의학의 발자취, 연 치의학의 미래비전)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및 한국의 치의학사를 연표화하여 게시물이 진열되어 있고, 치의학 유물은 한국사의 흐름과 종류에 따라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초대 치과 과장 쉐플리가 진료하는 모습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마네킹 인형과 치과 유닛 체어가 인상적이었다(그림 15). 이 전시물은 연세 치의학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되었다. 또한, 박선욱 원장이 30년 동안 수집해온 세계 여러 나라의 치과 관련 우표들을 2015년 연세 치대에 기증하였다. 박물관 입구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박물관 관람객을 맞이한다.

필자가 방문한 국내의 치의학 박물관 중에서 연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이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아무리 작은 박물관이라 하더라도 매년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 입구에 써진 ‘역사와 마주 서서 미래를’ 문구가 필자에게 울림을 준다.

## 3) 조선대학교 치의학 박물관

조선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은 2011년 3월에 치과대학 1층 로비에 개관하였다. ‘역사를 안고 미래를 열어가는 조선시대’라는 구호로 출발한 치의학 박물관은 13개 진열장에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의학 관련 유물 33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시물을 통해서 치의학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필자가 15년 동안 수집한 치과와 관련된 다양한 수집품들도 진열되어 있는데, 치과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주목을 끌만한 물건들이다.

2018년 3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함석태(1889-?) 선생의 흉상,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피에르 포샤르(1678-1761)의 부조상과 치과의사의 수호성인 아폴로니아(Apollonia) 테라코타가 3명의 동문이 기증하여 치의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16).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치의학 박물관이 있는 치과대학 1층 로비에 치호(齒湖) 미술관이 개관되었다. 치과 명화를 감상하면서 치의학의 역사를 배울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 4) 전남대학교 치의학 역사관

전남대학교 치의학 역사관은 1999년 2월 임종성 원장(임금치과)이 부친이신 임맹기 원장(송정동 임치과)의 뜻에 따라 부인인 방몽숙 교수(전남대학교 치과대학)를 통하여 치의학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자재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에 기증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다. 치의학 역사관은 2000년 9월 전국 최초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개교 20주년 기념으로 당시 광주광역시 학동 소재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1층~2층에 개관하였으며, 2008년 용봉동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및 치의학전문대



그림 14. 서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



그림 15. 2019년 연세대학교 치의학 박물관에서 최성호 교수님과 함께

학원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그림 17).

1946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임맹기 원장은 광주 광산구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였으며 은퇴 후 치과를 정리하고 치의학적인 가치가 있는 기자재를 보관해오다 아들인 임종성 원장에게 물려주었다. 임종성 원장은 본인이 수소문을 통해 알게 은퇴를 앞둔 치과를 찾아가서 기자재를 사비를 들여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박물관은 열정적인 수집가의 기증 없이는 쉽게 탄생할 수 없고, 확장될 수도 없다.

### 5) 경기도 치과의사회 치의학 역사관

경기도 치과의사회관 2층에 있는 치의학 역사관 입구에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다. “역사의 자료는 흘러간 골동품이 아니라 과거의 희생과 고통이 담긴 살아있는 정신이다.” 짧은 문장 안에 치의학 역사관이 만들어진 목적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치의학 역사관은 치과계가 지나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치의학 역사를 정리, 보존하여 치과계의 미래를 향해 더욱 발전하는 치의학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그림 18).

역사관은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의 치과 유닛 체어, 1905년 제작된 치과 기구 캐비닛, 치과용 X-ray 기계 등 300여 점의 치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회의록과 경기도 치과의사회 관련 자료도 잘 보존되어 있다. 치의학 역사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40여 명의 회원의 기증과 치과 관련 단체의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다.

2004년 3월에 개관한 치의학 역사관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대학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2년 동안 1,300여 명의 인원이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치의학 역사관에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최근에는 역사관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겨있는 상태다.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치의학 역사관 활용도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 역사관 폐관에 대해

서 논의하고 있다.

## 7. 일본

### 1) Museum of Medicine and Dentistry, Niigata

Nippon Dental University는 도쿄와 니가타(Niigata)에 각각 따로 있다. 같은 학교 법인이 분교 개념으로 또 하나의 치과대학을 니가타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박물관 여행을 준비할 때 학교 이름은 같고, 위치는 달라서 필자에게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 도쿄에 있는 Nippon Dental University는 한국인 최초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함석태(1889~?)가 1912년 졸업한 학교이고, 니가타의 Nippon Dental University는 1989년 일본 최초의 의학 및 치의학 박물관을 개관한 학교다.

치과대학 부속 건물 2층에 있는 이 박물관은 대략 120평 정도인데, 전시실뿐만 아니라 세미나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정도로 규모가 다른 치의학 박물관보다 크다. 박물관 명칭에 걸맞게 이 박물관은 15세기에 출판된 희귀한 의학 서적을 다량 소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학 기구와 기계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담당자 히구치의 설명에 의하면 치의학이 의학에서 언제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사료로 설명하고자 박물관 설립자가 3대에 걸쳐 수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박물관 명칭에도 의학이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박물관은 프랑스 Musee d'Art Dentaire Pierre Fauchard와 미국 Hartford Medical Society and Dental Society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 니가타에 있는 치과대학이 의학 및 치의학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부럽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감탄스러운 것이 사실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는 피에르 포샤르의 저서가 원본으로 1판, 2판, 3판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까지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

입상가를 위한 특집 2



그림 16. 2018년 조선대학교 치의학 박물관 함석태 흉상 제막식 기념 단체 사진



그림 17. 전남대학교 치의학 역사관



그림 18. 경기도 치과의사회 치의학 역사관 전경

림 19). 또한, 일본 전통 미술 우키요에(Ukiyoe) 작품으로 묘사된 치과 진료하는 모습이 원본이 이 박물관에 걸려있다<sup>26)</sup>.

## 2) Aichi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Nagoya

아이치현(Aichi Prefecture, 愛知県)의 주도인 나고야에 아이치현 치과의사협회 회관이 있고, 그 건물 1층 로비에 작은 치아 박물관이 있다(그림 20). 이 박물관의 주된 목적은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에게 치아 건강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박물관의 공식 명칭은 치아 및 구강 건강 박물관이다.

박물관의 전시실은 4개의 존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기획전시실이다. 이곳에서는 8020(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유지한다) 캠페인을 홍보하는 2개의 캐릭터 인형이 칫솔을 들고 있다. 골다공증, 마우스 보호대 및 치주 건강과 당뇨병에 대한 게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두 번째 전시물은 치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설명되어 있으며, 세 번째 전시실은 치의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전시 공간은 치아 체험공간으로, 구강에 관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덴탈 아이큐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눈에 보인다.

인구 750만의 아이치현에 치아 박물관이 설립된 시기는 1989년이다. 개관 이후 박물관은 무려 24차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치아 박물관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박물관의 크기는 아주 아담하지만, 그 역할은 대단하다. 아이치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가나가와현에도 치과의사협회에서 관장하는 치과 박물관이 있다.

## 3) Kanagawa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 Yokohama

도쿠가와 시대가 끝나갈 무렵인 1865년 미국 치과의사 W.C. Eastlake (1834-1887)는 요코하마의 외국인 정

착지에 치과를 개설하였고, 그는 일본에 서양 치의학을 전파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 Eastlake의 지도하에 Yasubei Hasegawa, Jizo Ando 그리고 Shigeru Sato는 현대 서양 치의학을 배우게 되었고, 3명 일본인은 일본에 서양 치의학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요코하마는 서양 치의학이 일본에 뿌리를 내리는 도시로서 치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가나가와 치과의사협회는 1987년 협회 건물 7층에 치과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치과 박물관은 일본관, 서양관 이렇게 2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본의 치과 유물은 에도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1)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서양 치의학은 18세기와 19세기 유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 박물관에서 인상적인 것은 치과 박물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안내서다(그림 21). 책은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있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19세기 후반에 사용되던 치과 유닛 체어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일본에서는 1877년 무렵부터 치과 엔진을 이용하여 치과 치료가 시행되었고, 20년 후인 1897년에는 전기식 치과 엔진이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치의학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에도와 메이지 시대에 사용되었던 일본 전통의 치약과 구강위생 용품들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흑치 풍습과 관련된 물건들과 나무 틀니는 방문객들의 이목을 끄는 소장품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우키요에의 거장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작품 중에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이 있다. 에도시대 말기인 19세기 후반은 호쿠사이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서양 치의학이 집채만 한 파도처럼 일본에 상륙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건너온 William St. George Eliott는 1870년부터 4년 동안 가나가와현의 주도인 요코하마에 치과를 개원하였다. 그의 조수인 Einosuke

인상가를 위한 특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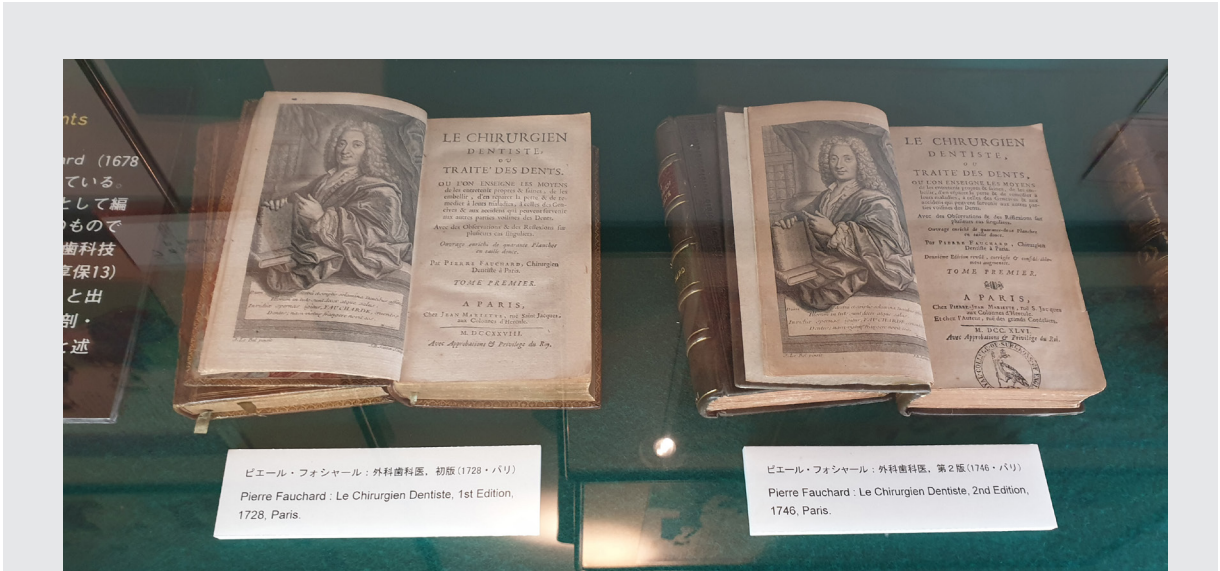


그림 19. 니가타 일본치과대학 박물관에 전시된 피에르 포샤르 원본 저서



그림 20. 나고야 치아박물관 전경

Obata는 국립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일본인 최초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Dr. Elliott의 뒤를 이어서 Horace Mason Perkins는 일본에 정착하여 치과를 개원하였다. Dr. Elliott와 Dr. Perkins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가나가와현 치과의사협회 회관 앞에 세워져 있다.

#### 4) Kanagawa Dental University Museum, Yokosuka

세계 2차 대전 이전 일본에는 동경여자치과대학전문학교(Tokyo Women's Dental College, 1910-1947, 이하 동경여자치전)와 동양여자치과대학전문학교(Toyo Women's Dental College, 1917-1945, 이하 동양여자치전)라는 2개의 여자 치과대학이 있었다. 첫 번째 학교는 지금의 Kanagawa Dental University이고 Toyo Gakuen University는 두 번째 학교의 시초다. 두 학교 모두 조선의 여학생들을 졸업생으로 배출한 학교이면서 치의학과 관련된 박물관 또는 역사관을 소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2월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8명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가나가와 치과대학을 방문하였다. 2013년 개관된 가나가와 치과대학 박물관에 큰 기대를 안고 떠났다. 일본어 1도 모르는 필자는 지씨코리아 황인창 과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여행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가나가와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학부 주임 이케다 루미(池田 瑠美)와 한국인 이정희 강사가 가나가와 치과대학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가나가와 치과대학 박물관은 동경여자치전이 설립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 110년의 치의학 역사를 잘 정리하여 한 눈에 보기 쉽게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Yokosuka Clinical Training Center 건물 1층에 300여 평의 규모로 그 크기도 인상적이다. 박물관은 7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여 점의 치과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실을 100년 전, 50년 전, 현대 이렇게

3개의 독립된 방으로 나누어서 그 시절에 사용되었던 유닛 체어, 기계 및 기구들로 재현해 놓았다. 3개의 진료실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치의학의 변천사를 눈으로 느낄 수 있다(그림 22).

박물관은 졸업생들로부터 기증받은 사료들이 연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경여자치전을 졸업한 8명(최금봉, 홍선양, 최정희, 장순희, 김응학, 최인상, 김영의, 김채영)의 조선 여학생들의 모습은 이름과 사진으로 모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의 딸들이 치과대학 학창 시절을 보냈던 병원, 교사, 교장(敎章) 및 교복은 사진으로만 남아있다<sup>27)</sup>.

#### 5) Toyo Gakuen Archives, Tokyo

동양학원대학(Toyo Gakuen University)은 Hisashi Uda (1881-1968)가 1926년 인수한 동양여자치전을 시초로 삼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Toyo Gakuen Archives (역사관)을 개관하였다. 현재 동양학원대학에는 치과대학이 없지만 동양여자치전 당시 사용되었던 치과 관련 유물들이 역사관 한쪽에 잘 전시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양학원대학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동양여자치전의 발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학교 앞에 세워서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그런데 동양여자치전의 시작은 1917년 설립된 명화여자치과대학전문학교(Meika Women's Dental College)이다.

1917년부터 1945년까지 명화여자치과대학전문학교와 동양여자치전에서 배출한 여자치과의사는 3,000여 명을 상회한다. 이 중에서 21명의 조선 여성들이 치과의사 면허를 일본에서 취득하였다<sup>28)</sup>. 1926년 1회로 졸업한 박봉남이 중국에서 진료하는 빛바랜 사진을 동양학원대학 역사 자료 담당자인 Nagato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그림 23). 1925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치과의학교(또는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에서 배출된 여성 치과의사의 숫자는 8명이었으니 동양여자치전의 21명 줄



그림 21. 가나가와 치과의사협회 박물관 가이드북



그림 22. 가나가와 치과대학 박물관



그림. 23. 2016년 동양학원대학 역사관에서 담당자인 Nagato 선생과 함께

업생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동양학원대학 (Hongo Campus)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인 도쿄 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도쿄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 V. 결론

치과의사에게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치과 박물관로 필자는 세 곳을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로 치과대학이 개설된 미국 볼티모어 메릴랜드 치과대학에 있는 National Museum of Dentistry이고, 두 번째는 영구 런던의 영국치과의사협회 회관 건물 1층에 있는 British Dental Association Dental Museum이고, 세 번째는 일본 Nippon Dental University에

있는 The Museums of Medicine and Dentistry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은 2008, 2011, 2017, 2018년 무려 4번이나 방문하였는데 갈 때마다 전시물에 작지 않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또 가고 싶은 치의학 박물관이다. 대한민국에도 어릴 때부터 치과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치과 박물관을 국민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본다.

## 참고 문헌

1.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USA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3;32(1):122-144.
2.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Korea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4;33(1):34-64.
3. Kweon H. Tour of the museum of dentistry in USA (3) [Internet]. Daily Dental. Jul 3, 2018 [cited at Feb 19, 2020]. Retrieved from: <https://www.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03138>.
4. Van B. Dalton The genesis of dent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pahr & Glenn Company, 1946.
5. Richard A. Kozal Dental World® Pierre Fauchard Academy 2009;May/June:1-6.
6. Garant PR. The long climb from barber-surgeon to doctors of dental surgery. Quintessence Publishing Co., 2013.
7. McAuley JE. The Homes of the British Dental Association. Br Dent J 1967;122:242-246.
8. Donaldson JA. The Historical Collections. Br Dent J 1967;122:254-257.
9. Gelbier S. The Historical Museum of the British Dental Association. Bulletin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3;41:85-88.
10. Phulari BS. History of orthodontics, JAYPEE, 2013.
11. Hunterian Museum at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Guidebook), 2016.
12. Berkovitz BKB. Nothing but the tooth: A dental odyssey. Elsevier, 2013.
13. Lee JH. 값비싼 잡동사니는 어떻게 박물관이 됐을까? Yekyong, 2014.
14. Barnett R. The Smile Makers. Thames & Hudson, 2017.
15. Cooper J. The Weaver Reading Room and Dental Museum, University of Liverpool Br Dent J 1988;165:193.
16.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UK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6;35(1):32-54.
17. Campbell JM. Catalogue of the Menzies Campbell Collection of dental instruments, pictures, appliances, ornament, etc. Royal college of surgeon of Edinburgh, 1966.
18.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France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5;34(1):106-135.
19.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Italy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7;36(1):90-114.
20. Baron P. L'art dentaire a traverse la peinture. ACR Edition, 1986.
21. Kweon H. The history of dentistry: Netherland/Belgium Tour.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8;37(2):120-148.
22. Schade GJ. Tandheelkunde in de Prentkunst. Uitgeverij, 2014.
23. Plasschaert AJM, Eijkman MAJ, Kalk W, et al. Canon van de tandheelkunde. KNMT, 2014.
24. Dental Museum Catalogue Compilation Committee. 한국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박물관. Momgwamaum, 2003.
25. Kim HJ, Kim SO. The Opening and Introduction of Dental Museum in Yonsei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6;25(1):1-10.
26. Sen N, Yoshihisa S, Kuninori H. Manners and Customs of Dentistry in Ukiyoe. Ishiyaku Publishers Inc., 1980.
27. Kweon H. 조선의 딸 핸드피스를 들다(2). W-dentist 2019;22(2):32-37.
28. Kweon H. 최초의 유학파 여성 치과의사. W-dentist 2017;21(2):40-43.